

경에 신양항에 사람을 내리고 10시 30분 제주로 떠난다. 그 배가 오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태우고 4시에 완도로 떠난다. 제주로 가는 사람은 적어도 상추자는 들러야 하니 시간의 여유가 없다. 게다가 일요일이라 첫 차가 더 늦는다 한다. 그래서 우린 콜택시를 불렀는데, 상추자까지 만원이고 한 시간을 타면 3만원이라고 한다. 스타렉스로 운영하고 있으니 사람이 많은 팀은 값이 싸다고 느낄 것 같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면 1시간이면 추자도를 다 보고도 남을지 모른다.

7시 50분에 집을 나섰는데, 우리는 8시 경에 추자항(상추자) 방파제 끝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수 있었다. 처음 왔던 해에도 추자항을 한 컷에 담고 싶었지만, 게으름 탓인지 카메라 탓인지 그러지 못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방파제에만 서도 추자항이 한 컷에 들어온다. 그 후 등대산으로 올랐다. 아마 전이면 이곳에서 대서리와 영흥리가 다 한 눈에 들어왔을 것 같다. 영흥리는 추자항을 사이에 두고 대서리와 마주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도 올라가고 전신주도 올라가고 있어서 쉽지 않다. 등대산이란 이름은 전에 등대가 없던 시절 등대 역할을 한 것에서 유래한다고 기사가 알려졌다. 등대산은 오늘날 산책코스로 개발된 것 같다. 그런데 정상 부근에서는 옛 시절을 느끼게 하는 동상이 서있다. 사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멀리서부터 궁금하였다. 혹시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어부를 기리는 기념비는 아닌가 하였다. 역시나 아니었다. 반공탑이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 반공이 뭔가 하는 이가 있을 것 같다. 나도 거기 내용을 보니 나도 그 탑을 세우는데 아주 작은 힘이 된 듯하였다. 당시에 거의 의무적으로 내는 성금이 그것이다. 정상에 서서보니 서울은 400km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다. 어쨌거나 멀리 보이는 예초리 뒤의 고개는 마치 빙하라도 지나간 듯 한 모습이다. 날씨가 점점 기우는지 어제는 보길도도 보였는데 오늘은 횡간도만 보인다.



사진 10 추자항(왼편이 영흥리 오른쪽은 대서리)



사진 11 향수(?)를 느끼게 하는 반공탑

마을 곳곳은 물통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그리고 길거리엔 역시 플라스틱 통이 넘쳐난다. 골목마다 젓갈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모두 멸치액젓을 담근 것 같다. 항구에 가까운 곳에는 그물이 넘친다. 바닷가로는 갯바위에서 미역을 말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모두인 듯하다. 대서리는 면소재지답게 마을이 크다. 신양리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마을 안의 어느 집은 제주도에서 온 택인지 아래는 이 동네 암석(변성암이 많아 보임)으로 그 위로는 현무암을 쌓아서 특이하게 보이게 하였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어느 집의 지붕은 밧줄로 엮어 매어 놓았다.

이제 다시 항구로 발길을 돌렸다. 모두 출항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방과제 밖은 바람이 꽤나 세 보인다. 출항 준비하는 이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더니 역시 이곳에도 외국인 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이다. 추자항 대합실은 한산하였다. 아니 문이 열려 있을 뿐이다. 정류장에만 붐빈다. 모두 10시 30분에 신양항을 떠나는 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린다. 버스는 매시 정시에 추자항을 출발하여 예초리까지 돌아온다.



사진 12 물통과 추자항



사진 13 어구를 손질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진 14 대서리 마을 안

등대 전망대에 오르기
로 하였다. 사실 가기 싫
은 곳이었다. 나는 산에
오르는 것을 그리 좋아
하지 않는다. 기사가 알
려주길 계단이 500개라
는 것이 용기를 내게 하
였다. 제주도에서 지난겨
울 물영아리의 800계단
을 오른 것을 떠올리며
서 쉽게 생각하였다. 등
대 전망대는 오른 값을
하였다. 방과제에서도 추
자항이 하나로 들어오긴
하지만, 이곳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어촌
경관 사진 하나 담겠다고
꽤나 허둥거리고 다녔지
만 이만한 어촌 모습은
드물 것 같다. 어촌 경관
만큼은 자신이 생길 것
같다. 다만 사진만 잘 나
와 준다면.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달라지는 추
자항의 모습도 온 값을
한다. 이곳에선 하추자의



사진 15 등대전망대에서 바라본 추자항



사진 16 등대전망대에서 보이는 하추자도

돈대산 넘어만 빼고는 추
자도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 같다. 바람이 하도 심하여 사진을 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경관을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가득 차는 것 같다. 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보려고 고생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만 오후 배를 타려면 가야한다. 내려오는 길에 사무실에 들렀더니 덤으로 달콤한 커피까지 얻어 마실 수 있었다. 그 아저씨도 제주도 사람이란다.

등대를 다 내려왔는데도 10시 반이다. 제주로 가는 배가 떠날 시간이다. 신양리에선 정확하게 말하면 하추자도에선 점심 먹을 곳이 없다고 한다. 점심은 상추자에서 먹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다. 그래서 그냥 걷고 민박집에 가서 이야기를 잘 하여 라면으로 때우기로 하였다. 이제 다시 걷기 시작이다.

무너진 추자교 때문에 94년에 왔을 때는 이 길을 물통을 들고 걸었다. 섬이라 물이 귀하였던 시절이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우리 일행 모두 잠은 재워주는데 물은 들고 오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모두 물 한 말씩을 들고 그 길을 걸었다. 다리가 약하여 무거운 차는 지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무거운 트럭이 일을 내고 만 것이다. 사실 그 때 나는 태풍이